

# 4년만에 PGA 우승... 43세 로즈 '부활'

### 페블비치 프로암 18언더파 269타 정상...마스터스 출전권 확보 세계 랭킹 71위→35위로... 안병훈 공동 37위·김성현 공동 41위

저스틴 로즈(43·잉글랜드)가 4년 만에 미국프로 골프투어(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로즈는 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파72)에서 열린 PGA투어 AT & T 페블비치 프로암(총상금 9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브랜던 토트와 브랜던 우(이상 미국·15언더파 272타) 등 공동 2위 2명을 3타차로 따돌린 로즈는 2019년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우승 이후 4년이 나 이어졌던 우승 감증을 씻었다.  
 PGA투어에서만 11승째다.  
 한편 세계랭킹 1위에 올랐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던 로즈는 40세가

된 2020년부터 부진에 빠져 PGA투어는 물론 DP 월드투어에서도 우승하지 못했지만 이번 우승으로 부활의 나래를 폈다.  
 우승 상금 162만 달러를 받은 로즈는 자칫하면 중단될 뻔했던 마스터스 출전 자격을 손에 넣는 기쁨도 누렸다.  
 로즈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4개 메이저대회에서 개근했지만, 올해는 출전 자격 상실이 우려됐다.  
 이날 우승으로 마스터스 출전권은 확보했고, 71위였던 세계랭킹이 35위까지 올라와 세계랭킹 50위 이내면 받을 수 있는 US오픈, 디오픈, PGA 챔피언십 출전권도 안정권이다.  
 로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믿기지 않는 대회"라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말"이라고 기뻐

했다.  
 로즈는 약천후 때문에 전날 9개 홀을 치른 데 이어 이날 9개 홀을 끝내며 최종 라운드를 마치는 데 이틀이 걸렸다.  
 전날 6번 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내는 등 9번 홀까지 3타를 줄여 2타차 단독 선두를 질주한 로즈는 경기가 재개된 뒤 잔여 9개 홀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뽑아내 깔끔하게 우승을 확정했다.  
 11번 홀(파4)에서 8m 버디를 떨어뜨린 뒤 14번 홀(파4) 6m 버디와 15번 홀(파5) 2m 버디로 쉼기를 박았다.  
 4라운드에서 4타를 줄인 강성훈(36)은 29위(7언더파 280타)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안병훈(32)은 공동 37위(5언더파 282타), 김성현(25)은 공동 41위(4언더파 283타), 노승열(32)은 공동 65위(1오버파 288타)에 그쳤다.



저스틴 로즈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진 종합경기장에서 훈련 중인 중학생 선수들. <강진군 제공>

## 강진서 초등 축구 최강 가린다

### 10~16일, 청자배 동계 페스티벌 U-12·U-11 61개 팀 1200명 참가

강진군은 10일부터 16일까지 강진종합운동장 일원에서 '2023 강진청자배 초등 동계 페스티벌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U-12, U-11 61개 팀 1200여 명이 참가해 팀의 명예를 걸고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강진군은 방문하는 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 최적의 경기 환경 지원을 위해 천연잔디 구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구장마다 음급 차량을 배치할 예정이다.  
 급수대와 온수기를 설치하고 차와 커피를 준비

하는 등 경기 전 손님맞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7일 "전국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진이 스포츠대회 및 전지 훈련 최적지임을 꾸준히 홍보해 더 많은 대회와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1@kwangju.co.kr

## 광주시 3개 '지정스포츠클럽' 선정

### 문화부, 올해 1차 공모

광주지역 전체 10개 공공스포츠 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됐다.  
 7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023년 1차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서 광주지역 3개 클럽이 지정스포츠 클럽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체육회는 지난해 선정된 7개

클럽을 비롯해 모두 10개의 스포츠클럽이 지정 스포츠 클럽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신청했으며, 지정스포츠클럽은 '체육시설 확보', '인적자원 확보', '다 수준, 다 연령 특화프로그램 운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등의 평가지표를 통해 서면평가, 사업계획 평가, 면접 심사, 최종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3개 지정스포츠클럽은 광주

다음스포츠클럽, 행복남구양공스포츠클럽, 광주공도스포츠클럽이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국가의 예산·사업지원을 받고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 계약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목적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스포츠클럽은 엘리트체육 중심 체육정책에서 벗어나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한국 컴파운드 양궁 첫 외국인 사령탑

### 양궁협, 미국인 리오 와일드 선임 1년간 세계선수권·AG 등 지도

한국 양궁이 컴파운드 양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외국인 사령탑을 모셔왔다.  
 대한양궁협회는 컴파운드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미국인 리오 와일드(49·사진)를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양궁협회에 따르면 한국 대표팀을 외국인 감독이 이끄는 것은 컴파운드와 리커브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양궁은 올림픽 종목인 리커브에서는 세계 최강의 실력을 뽐내왔으나, 컴파운드에서는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남녀 컴파운드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한국 선수는 없다.  
 와일드 감독은 현역 시절 세계선수권대회(3회), 월드컵 파이널(1회), 월드컵(29회) 등 국제무대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미국 국가대표팀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지속해서 배출하는 등 지도자로서 능력도 검증됐다.  
 와일드 감독은 올해 1년간 세계선수권대회 및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중요한 국제대회를 앞둔 컴



파운드 대표팀의 경기력 강화를 목표로 기술, 장비, 심리 등 전반적인 부분의 지도를 맡을 예정이다.  
 와일드 감독은 "양궁 최강 한국 국가대표의 일원으로 합류해 영광"이라면서 "컴파운드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총상금 250억' PGA 피닉스오픈 내일 개막

### 세계 1위 매길로이 올 첫 대회...한국, 임성재 등 4명 출전

우승 상금이 한국 돈으로 45억원에 이르는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WM 피닉스오픈이 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TPC 스코츠데일(파71·7261야드)에서 개막한다.  
 지난해 총상금 820만 달러였던 이 대회는 올해 총상금이 2000만 달러(약 250억9000만원)로 2배 이상 늘었다. 우승하면 360만 달러(약 45억원)를 받는다.  
 올해 상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PGA 투어가 2022-2023시즌 17개 대회를 '특급 대회'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17개 대회는 4대 메이저 대회와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PGA 투어의 3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대회, 9개 일반 대회로 구성됐다. 17개 대회 가운데 올해 1월에 열린 센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만 총상금이 1500만 달러고, 나머지 대회들은 모두 2000만 달러 이상의 규모를 자랑한다.  
 센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는 지난해 우승했거

나, 시즌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던 선수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전자 수가 많지 않은 대회다.  
 센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에 이어 열리는 첫 '특급 대회'가 바로 이번 주 피닉스오픈이다.  
 이 '특급 대회' 들에는 상위 랭커들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나와야 한다.  
 지난 시즌 PGA 투어 선수 영향력 지표 20위 안에 든 선수들은 17개 대회 가운데 1개 대회에만 빠질 수 있다.  
 세계 1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도 그래서 피닉스오픈을 올해 첫 PGA 투어 대회 출전 대회로 삼았다.  
 세계 2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개인 통산 첫 PGA 투어 우승을 경험했고, 세계 3위 윤 램(스페인)은 애리조나주립대를 나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25), 김주형(21), 김시우(28), 이경훈(32)이 출전한다. 이경훈은 2021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경력이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교섭
2관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3관	타이타닉, 아바타: 물의 길
4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5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메간
9관	우리 사랑이 향기로 남을 때, 상견너, 몬스터 하우스2: 인비저블 피닉스
7관	씨네커를 영웅, 어쩌면 우리 헤어졌는지 모른다
8관	씨네커를 유령, 다음 소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